

은행권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한 보증지원 업무협약식

2019.3.25.(월) 10:30  
신용보증기금 대구 본점

---

#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

2019. 3. 25.

## 금 융 위 원 회

※ 본 원고는 보도를 위한 참고용으로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입니다.

먼저,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님,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님,  
김태영 은행연합회장님과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행장님,  
신한은행 부행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21일, 「혁신금융 비전」 발표가 있었습니다.  
금융이 산업과 현장을 더 잘 이해하고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전면 혁신하고,

사업재편·R&D 등 산업 혁신을 지원하여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렸습니다.

“혁신금융”이 우리 산업현장 곳곳에서  
기업의 숨통을 틔우고,  
산업의 혁신을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면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 2. 은행권 사회공헌자금을 통한 금융지원의 취지

오늘은 은행권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사회공헌자금을 바탕으로(1천억원)  
보증기관이 새로운 금융지원 상품을 출시하는(총 1.4조원)  
뜻깊은 자리입니다.

※ ①자영업자(0.6조원), ②일자리창출기업(0.7조원), ③사회적경제기업(0.15조원)

은행과 보증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금융의 온기를 가장 필요로 하는  
자영업자, 일자리창출기업,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며,

특히, 매출 불안정, 비용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  
신보와 기보가 앞장서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 3. 자영업자의 현황 및 금융지원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는 상당히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흔히 “사장님”이라 불리는 자영업자는  
고용인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자기고용사업자”로서  
사장이자 노동자에 해당합니다.

자영업자의 수는 약 550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4.4%를 차지하여 OECD 최고 수준<sup>①</sup>이며,  
평균 노동시간이 길고<sup>②</sup>,  
임금노동자와의 소득격차는  
확대<sup>③</sup>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 ①자영업자 비중('17년) : 한국 25.4%, 일본 10.4%, 독일 10.2%, 미국 6.3%
- ②자영업자는 직장인에 비해 주당 평균 4.7시간 더 일함(2015, 한국노동패널조사)
- ③임금근로자 - 자영업자 소득격차 : ('13년) 연 463만원 → ('17년) 연 805만원

이 때문에 우리 자영업 현장은  
마치 적은 목초지에 너무 많은 가축이 몰려있는 것처럼  
매우 어려운 시장이라는 인식도 있습니다.

(골목의 전쟁, 김영준著)

그러나,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에 비해  
지원제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합니다.

매출이 불안정하고,  
임대료·원재료 비용 상승 등  
통제 불가능한 외부변수에 노출되어 있는 반면,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워  
많은 자영업자가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사업자금을 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 자영업자 사업자금 원천 : 본인 또는 가족 64.0%, 금융권 조달 26.3%, 정부 보조 또는 지원 0.5%(통계청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결과, '18.8월)

#### 4. 「자영업자 맞춤형 보증」의 내용 및 의의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난 12월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단기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초저금리 대출을

시행하여 전반적인 금융공급을 확대하였고(기은, 1.8조원)

중장기적으로,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체계적인 여신심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기지원제도도 보완해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영업 부문에서 “인내 자본”이라

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자영업 부문도 시행착오와 실패를 통해

아이디어를 가다듬고,

노하우를 숙성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훌륭한 아이템이라도 시장이 알아볼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낮은 생존율에서 엿볼 수 있듯,

자영업자에게 축적의 시간이라는 말은

너무도 멀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 5년 생존율 : (숙박·음식점업) 18.9% (도소매업) 25.4% (제조업) 39.3%

오늘 시행하는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은

경쟁력과 성장성을 갖추고 있으나 여러 요인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드리려는 취지입니다.

첫째, 자영업자를 수요자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프로그램(6,000억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매출액이 적고, 담보가 부족하여 금융접근성이 떨어지는  
(i)영세 자영업자를 중점 지원(4,500억원)하는 한편,

매출액 감소 등 영업 악화로 금융조달이 불가능한  
(ii)데스밸리 자영업자를 특별 지원(1,200억원)합니다.

과거의 실패 경험을 자산으로한  
재도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 중심의 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iii)재창업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300억원)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비용증가 등 자영업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요건을 대폭 우대하였습니다.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i)보증비율을 대폭 상향하고,  
(ii)보증료율은 대폭 인하하여 획기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i) 일반 85% → 영세 자영업자 95%, 데스밸리·재창업자 100%

(ii) 일반 1.5% 내외 → 영세 0.3%p↓, 데스밸리 0.5%p↓, 재창업 0.5% 고정요율

특히, 자영업 부문에서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축적의 시간”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iii)만기 5년의 장기자금을 지원합니다.(통상 만기 1년)

마지막으로, 은행권의 “자영업자 컨설팅”과 연계하는 등  
비금융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은  
세심하고 균형있는 관리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부실한 심사와 관리로 자영업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은행권의 금융지원이  
자영업자의 내실있는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 자영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은행이 자영업자에 대한 전문 컨설팅 제공('18.12월)

<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			
구 분	①영세 자영업자	② 데스밸리	③ 재창업·재도전
지원대상	연매출 5억원이하 자영업자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자영업자	신청일부터 3년 이내 폐업경험이 있는 (예비)재창업자
보증비율	95%	100%	100%
보증료율	0.3%p 인하	0.5%p 인하	0.5% 고정요율
보증한도	동일기업당 3억원	동일기업당 1억원	동일기업당 1억원
보증심사	성장성·잠재력 기반 보증심사	완화된 보증심사	특별위원회 심사
보증기한	5년	5년	5년

※ 지원제도 세부내용은 별도 보도자료(「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참조

## 5. 마무리 말씀

정부는 자영업을 독자적인 정책 대상으로 삼고,  
올해를 자영업의 전환점으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다각적인 제도적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차보호 강화\*,  
18조원 규모의 전용상품권 발행(~'22년) 등  
공정한 경쟁 환경을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이 5년 → 10년으로 확대('18.10월)

여전히 어려움이 크지만,  
지금도 대형 프랜차이즈에 맞서 오랫동안 사랑받는  
맛있는 동네 커피집, 숨겨있는 미용실,  
만능 카센터가 적지 않습니다.

은행권과 보증기관이 앞장서서  
골목과 시장, 우리 곁에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장님들의 성장과 성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기업, 사회적경제기업과 같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 외부효과를  
가져오는 기업에 대해서도  
튼튼한 지원군이자 버팀목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